박지원 작심발언 "지도부 가만 안 두겠다"

국민들은 정권 주려 하는데 요행만 바라
모바일 국민경선 주장한 세력 책임져야
호남 이런 푸대접 처음…대권 도전할 것

박지원 민주통합당 최고위원이 12일 4·11 총선 참패와 관련, '지도부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하며 당 지도부를 향해 작심한 듯 쓴소리를 쏟아냈다.

당 통합 이후 지도부의 '호남 푸대접'에 대해 직설적으로 비판하며 호남지역 국회의원들의 단합을 강조하는가 하면 대권 도전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연말 대통령 선거에서 호남의 역할론을 강조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광주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들은 민주통합당에게 정권을 줄 준비를 했는데, 당은 요행만 바랐다. 감나무 밑에 드러누워서 마치 감이 입으로 떨어지기를 기다렸다"며 지도부를 통렬하게 비난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지도부 책임론의 방향은 한명숙 대표 사퇴가 될 것"이라며 "이번 선거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4·11 총선결과에 대해 반성하고 책임지지 않으면 연말 정권교체도 힘들 것"이라며 "대통합을 다시 아울러서 정권교체를 준비해야 한다"고 지도부 책임론을 재차 강조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참패한 원인으로 4가지를 들었다.

그는 "야당은 야당다워야 하고 선거는 이기려고 해야하는데 이번 총선에 임하는 민주당은 문제가 많았다"고 운을 뗀 뒤 무질서한 통합과 시대착오적인 경선방법, 친노 세력이라는 특정 계파의 독식, 선거전략 부재 등을 꼽았다.

그는 "질서있는 통합이 안된데다 모바일 국민경선이라는 시대착오적인 경선으로 후유증·반발이 이뤄지면서 이번 선거를 망쳤다" 지적하고 "모바일 국민경선을 주장했던 당내 세력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 계파가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독식했고, 수도권·강원·충청권 위주로 공략해야하는데도 영남에만 공을 들이는 실수를 범했다"고 당내 친노세력에 대해 우회적으로 비난하기도 했다.

박 최고위원은 기자간담회 내내 당 통합 이후 당내 '호남 소외'에 대한 그동안의 감정이 폭발한 듯 지도부를 겨냥, "가만 안 놔 두겠다"는 말도 수차례 했다.

그는 "통합 과정이나 경선, 공천 과정에서 한 세력이 독식해서 (호남이) 이렇게 푸대접을 받은 것은 처음"이라며 "통합은 한 계파가 완전히 장악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세력에 대한 배려와 안배가 있어야 하고,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호남이 살기 위해서는 연말 대선 때까지 호남지역 국회의원들이 뭉쳐 호남의 이익을 대변해야 한다"며 "호남 국회의원들이 정신 차려야하며, 호남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도 대권 도전도 불사할 것"이라며 대권 도전 가능성을 내비쳤다.

박 최고위원의 이 같은 발언은 오는 12월 대선을 앞두고 당내 호남세력의 단합을 꾀하는 한편 친노세력 등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민주당 광주 국회의원 당선자들

"1당 못된 것 사죄"

"지역발전에 앞장"

4·11 총선에서 당선된 민주통합당 광주지역 당선자들은 12일 "민주통합당의 부족으로 총선에서 제1당이 되지 못한 점, 깊이 반성하고 사죄한다"고 밝혔다.

강기정·김동철·이용섭·장병완·임내현·박혜자 등 당선자 6명은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광주시민의 지지와 성원에 대한 감사의 말과 함께 이번 선거 참패에 대해서도 사과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이번 선거에서 참패한 것은 당의 자만과 무능 때문이다"며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고, 수정할 부분은 수정해야 한다"고 사실상 지도부 책임론을 거론했다.

강기정 당선자는 "MB정부 심판에 대한 국민의 열정적인 반응이 있었는데, 이 좋은 기회를 살리지 못해 독(毒)이 되고 말았다"며 "자만과 무능을 하루빨리 치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섭 당선자는 "제1당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었는데 당의 무능 탓에 새누리당의 전략이나 전술에 휘말린 감이 있다"며"깊이 자성하고 반성해야 하며, 정권교체를 위한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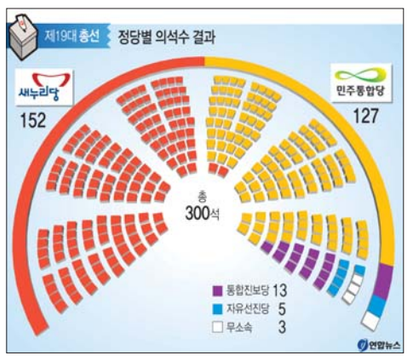
이들은 또 "지역 국회의원 간 단합과 조율을 통해 지역발전에 나설 것"이라며 "시당위원장 선출도 경선이 아닌 다른 방식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와 함께 "뼈를 깎는 반성과 헌신으로 광주 시민의 뜻을 받들고 정권교체를 이뤄 새로운 역사를 쓰겠다"고 다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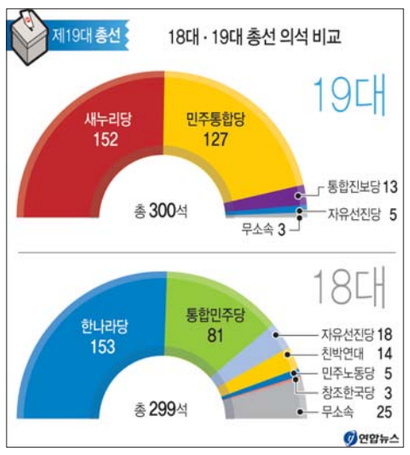
앞서 민주통합당 광주지역 당선자들은 당직자들과 함께 5·18 국립묘지 참배를 했다. 이 과정에서 5·18 묘지 참배를 저지하는 5·18 민주유공자회(공법단체) 설립추진위원회(공추위) 회원 등 40여명과 몸싸움을 벌이는 곤욕을 치렀다.

공추위는 "대다수 5·18 유공자의 바람인 공법단체설립 법안 제정을 외면하고 오만불손한 행동을 한 민주당 지도부와 당선자의 참배를 저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5·18 국립묘지 참배를 위해 추념문에 들어서는 당선자와 당직자 등을 몸으로 가로막았다. 이 과정에서 수행 당직자 등과 20여 분간 심한 몸싸움을 벌였다.

당선자들은 경찰력이 동원된 뒤에야 참배를 마쳤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한명숙 때문이야"

민주 총선 참패 리더십 위기 … "국민 뜻 무겁게 받아들일것"

민주통합당의 4·11 총선 참패의 책임을 지고 한명숙 대표가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게 일면서 한 대표의 거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처럼 한 대표 책임론이 강하게 이는 것은 '차려 놓은 밥상도 먹지 못하고 차버렸다'는 비판이 일 정도로 총선 승리의 호기를 놓쳤다는 지적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총선 초반에는 애초 민주당이 원내 제1정당이 된다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 단독 과반을 예상하는 견해도 있었다. 한 대표 자신도 지난 2월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 나와 "과반의석을 획득하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선거 결과는 예상 밖의 참패였다.

공천 과정에서 불거진 친노·486 특혜와 구(舊)민주계 학살 논란, 도덕성 후퇴 논란, 모바일경선과 야권 단일후보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부정선거 논란 등이 이어질 때 한 대표는 정치적 리더십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더욱이 김용민 후보의 '막말 파문'이 터졌을 때 보여준 우유부단한 모습은 선거 패배에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때문에 한 대표는 최고위원 등 당내 주요 인사들과 거취 문제를 논의하고 있으며 조만간 거취를 포함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현충원을 찾아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한 자리에서는 방명록에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이겠다"고 적었다.

당 안팎에서는 한 대표가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신임 지도부를 구성한 뒤 대표직에서 물러나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당내 주류 일각에서는 사퇴가 만능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오히려 당내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한 대표의 측근은 "오늘·내일 사퇴를 한다는 게 능사는 아니다. 그런 것(사퇴)을 포함해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 자기성찰·새출발해야"

강운태 시장·박준영 지사

광주시장과 전남지사가 4·11 총선 결과와 관련 민주통합당에 통렬한 성찰과 함께 화합을 통한 새 출발을 촉구했다.

강운태 광주시장은 12일 논평을 내고 "이제는 선거과정에서 발생한 상처와 후유증을 말끔히 털어내고, 화합과 통합의 힘을 모아 새롭게 출발해야 할 때"라며 "이번 선거가 광주의 도약과 민생경제 그리고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준영 전남도지사는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통합당은 결국 국민의 마음을 얻는데 한계를 보였다"고 진단하고 "통렬한 자기 성찰을 하고 당 정체성을 바로 잡아, 오는 12월 대선에서 다시 한 번 국민을 위해 봉사할 기회를 갖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광주상공회의소와 광주경영자총협회 등 지역경제계도 제19대 국회의원들이 경제를 살리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며,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불면증 한방(韓方)으로 치료!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110726-중-9062호

자연과 몸을 하나로 만드는

경희한의원

사람들은 항상 성공을 향해 바쁘게 달립니다.
그러나 자신의 욕망과 결과가 맞지 않으면 못견디고
속이 상해하고 병까지 얻습니다.
이젠 목표를 조금만 낮춰 다시 시작해 보십시오.
처음보다 더 큰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바로 자연의 이치대로 살아가는 것이 편안한 삶이며
병을 얻지 않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인 진료가 아닌 환자의 마음을
살피고 어루만지는 가족주치의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잠들기전까지 30분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거나 잠을 깨는 횟수가 하룻밤 중에 5회이상이거나 깨어있는 상태가 30분이상 되는 경우 또는 6시간 이하이면서 잠을 깨면 다시 잠자기 어려운 경우 등은 불면증을 의심하여야 한다.

불면증은 말그대로 여러가지 원인에 의해 수면이 박탈당하는 것을 말한다.

보통 불면증은 '입면장애', '수면유지장애', '조기각성' 으로 분류한다. 입면장애는 잠들기까지 30분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말하며, 수면유지장애는 잠을 깨는 횟수가 하룻밤중에 5회 이상이거나 깨어있는 상태가 30분이상 되는 경우를 말한다.

또 조기각성은 전체 수면이 6시간 이하이면서 잠을 깨면 다시 잠자기 어려운 상태를 말한다.

한의학에서는 수면의 기전을 기의 운행으로 설명하고 있다.

기가 낮에는 인체의 밖을 순행하므로 잠이 오지 않고, 밤에는 기가 인체 안으로 들어감으로 잠을 자게 되는데 불면증은 이러한 정상 생리에 이상이 생겨서 오는 것이다.

한의학에서는 불면의 원인을 크게 다섯가지로 나눈다.

(1) 사려과다(思慮過多)
생각을 과하게 하여 비장(脾臟)과 심장(心臟)이 손상되어 피(血)를 소모시키는 경우이다. 건강한 사람보다는 부인의 산후나 오랫동안 병을 앓은 환자, 노인 등에게서 많이 나타난다.
이때는 꿈이 많고 자주 깨며 가슴이 두근거리고 잘 잊어버린다. 또 입맛이 없거나 몸이 권태롭고 정신적으로도 쉽게 피곤해 한다.
주로 내성적인 사람에게 많다.

(2) 음허화동(陰虛火動)
장기간 영양부족이 지속되거나 오랜 병, 여성호르몬의 부족, 지나친 성교로 신장(腎臟)의 기능이 손상되어 상화가 위로 올라와 심장의 화를 자극하므로 정신이 안정되지 않아 불면증이 생기는 경우이다.
이때는 가슴이 두근거리고 잠이 오지 않으며 어지럽고 귀에서 소리가 나며 입이 마른다. 발바닥이 뜨겁거나 번열이 생기며 간혹 몽정이 나타나기도 한다.

(3) 심담허겁(心膽虛怯)
몹시 겁이 많거나 크게 놀란 후에 심장과 담이 약해져 발생한다.
이때는 가슴이 심하게 뛰고 매사에 잘 놀라며 평소에도 무서움이 많아 혼자 있기 싫어하거나 불안 초조감이 많이 나타난다. 자는 동안에도 꿈이 많고 쉽게 깨는 것이 특징이다.

(4) 간양상항(肝陽上亢)
스트레스 특히 분노를 오래 참는 것으로 인해 간장이 손상되어 발생한다. 성격이 조급하고 쉽게 화를 내며 눈이 충혈되고 입이 쓰며 갈증이 난다.

(5) 위중불화(胃中不和)
음식을 잘 조절해 먹지 않아 소화불량이 되어 명치끝이 답답하고 괴로워 편히 눕지 못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다.
대변이 시원치 않거나 복부가 부풀어 오르고 가슴이 답답하기도 하다. 만성 위염이나 위하수증 등에서 볼 수 있다.

불면증 치료

생각이 많아서 불면증이 생기는 경우는 신경이 많이 쓰이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주고, 가슴이 답답한 경우는 가슴을 편안케 해주는 방법을 사용한다.

몸이 피곤할 경우는 몸의 원기를 보충해 피로를 풀어줘야 하고, 신체증상이 심한 경우는 대증치료를 통해 신체증상을 우선 개선시켜준다. 만약 정신질환의 경우는 질환 치료를 먼저해야하며, 노인인 경우는 몸의 원기를 보충해 줌과 동시에 기의 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한데 증상에 맞는 약물요법과 침구요법을 주로 활용한다.

한방 약물요법으로는 사려과다로 오는 경우는 귀비탕을, 음허화동으로 오는 경우는 청심연자탕이나 가미소요산을, 심담기허로 오는 경우는 가미 온담탕을, 위중불화로 오는 경우는 향사양위탕을 각각 사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처방이다.

일반적인 통용방(通用方)으로는 산조인탕을 사용한다.

진료과목 한방내과, 한방부인과, 한방소아과, 한방신경정신과,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침구과

진료안내 • 홧병 / 스트레스 질환
- 불안, 초조, 가슴떨림 - 상열감, 안면홍조, 갱년기 장애
- 신경성 두통, 불면증, 우울증 - 수험생 집중력 저하

진료시간 평 일 : 오전 9:30~12:30 / 오후 2:00~6:30
토요일 : 오후 4시까지 진료 공휴일/일요일 : 휴진

진료문의 TEL 062)365-1541
광주 서구 화정동 추선회관 건너편

※ 주차장 완비 ※ (건물 옆 패밀리 렌터카)

침·뜸·부항은 한의사에게! 한약은 한의원에서!